나주 SRF 다툼 격화 조짐…가동 여부 법원이 결정하나

나주시 "광주 SRF 반입 승인한 적 없다" 행정명령 예고
한국난방공사, 가동 지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개 방침

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재개됐다. 2년 가까이 가동됐던 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인허가권자인 나주시는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관련법에 따른 행정명령 예고에 나섰고,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SRF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RF 발전소 가동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나주시는 1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며 "한난 측의 합당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행정명령과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관련법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과 나주시와의 합의 없는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시장이 언급한 '사업계획 임의변경'은 지난 2014년 4월 한난 측이 나주 신도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연료사용 일 225t)을 정당한 절차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나주시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한난 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변경신고' 없이 665t의 연료를 사용 승인받았는데, 해당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시장 등 나주시 관계자는 시가 취할 행정명령 및 법적 조치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한난 측은 공개적 언급은 삼가면서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에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인허가(사업개시 신고 수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관거버넌스 활동 기간 중단됐으나 이달 중 재판 재개 요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한난 측은 2018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 등 결재라인 공무원 8명과 나주시를 피고로 세운 바 있다. 한난 측은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기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당시 피고들에게 묻되, 담당 공무원이 바뀐 만큼 원고 면면을 새롭게 해 별도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 측은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도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난 관계자는 "2년 가까운 민관거버넌스 가동 기간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손실이 쌓이고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험 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하라"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 의원들이 1일 오전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 생활방역 덕에…독감·호흡기 질환자 급감

11월 독감바이러스 한건도 없어

광주에서 생활방역 강화에 따라 인플루엔자(독감)와 호흡기 질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주 지역 호흡기환자 검체를 모니터링하는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사업을 실시한 결과, 11월 수집된 표본검체 118건 중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엔 10월 4주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첫 검출되고, 11월에만 22건(12.1%)이 검출됐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인플루엔자 출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11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도 45.8%로, 지난해 67%에 비해 줄었다. 주요 원인병원체로는 라이노바이러스 32건(27.1%), 보카바이러스 16건(13.6%), 아데노바이러스 6건(5.1%) 순이었다.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질환이 크게 감소한 것은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생활화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순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라면서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건립 용도변경 즉각 중단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지역주민 대표 등 나주시에 촉구

광주·전남 시민단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대표 등이 1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공대 인접 골프장 잔여부지 고층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나주시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와 주민대표들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단체협의회, 전남지방분권연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전노협,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빛가람동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주)부영주택은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부영골프장 부지 40만㎡를 무상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부영주택은 골프장 잔여부지 35만㎡에 대해 20~28층 높이의 5383세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현행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나주시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영주택 측의 신청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혁신도시 내 주거단지 중 과도한 부영아파트 단지 비중 ▲학교부지의 절대적인 부족 ▲도시계획의 부조화 ▲혁신도시 내 아파트나 상가소유자와의 계약 및 신뢰 위반 ▲특정 민간기업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는 모두 21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부영아파트 단지다. 용도변경으로 3개 단지가 추가되면 24개 중 10개로 그 비중이 늘어난다.

이들 단체는 이어 서울, 광주 등의 도시에서 이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우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서 1단계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해 30~40% 공공기여를 의무화했으며,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와 관련 사전협상제를 처음 도입해 242억원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 등은 나주시는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현행 도시계획 절차를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다른 대도시의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자발적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다시 착수할 것도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꿈꾸는 AI 경진대회' 본선 5일 개최

헬스케어·자동차 등 4개 분야

광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오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0 꿈꾸는 아이(AI)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연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이 가진 현안 문제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형성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 지원자가 해결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아이템 발굴 및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진대회는 지역 주력산업인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오픈종목(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엔비디아(NVIDIA), 인텔(Intel), AWS 등 해외 기업과 LG전자, CJ올리브네트웍스, 한국광기술원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해 예비창업자들이 실무현장의 플랫폼과 실데이터를 경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26일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AI 종목별 융합 서비스 실증 능력을 평가하는 예선에 총 128개 팀이 참여해 30개 팀이 본선 진출 팀으로 선정됐다.

본선은 예선 문제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기술성 외에 비즈니스 모델 등의 발표를 통한 사업성 중심의 평가가 이뤄진다.

본선 대회는 총 3라운드 종목별 토너먼트에서 최종 우승 4팀이 결정되며,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를 조정하고 온오프믹스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등수별로 총상금 1억 9000여만원이 수여되고,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창업 및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자금 지원, 수요기업 매칭, 창업공간 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